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157명 정부 포상

유은주 기자 | 승인 2024.04.22 17:10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유공자 수상 영예
인공지능, 양자, 첨단바이오 육성 방향 제시
이종호 장관 “연구개발 혁신 환경 구축할 것”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제57회 과학의 날과 제69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은 22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과학·정보통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양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주제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이태식 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를 포함해 총 수상자 157명 중 현장 참석자 136명에게 시상을 진행했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 창조장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이 수상했으며, 혁신장은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이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과학기술 포장은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민승배 한국쓰리엠 아시아연구소장 등 총 10명이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권창섭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와 헨켄스마이어디악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총 21명이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은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 총 26명이 수상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정부포상이 주어졌다.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김용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도약장은 노용영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과학기술 포장은 한세광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하윤철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총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은 장춘곤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현석 서강대학교 부교수 등 총 6명이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주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세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7명과 한국재료연구원이 받았다.

이밖에도 정보통신 발전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4개 단체 포함)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황조근정훈장에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 동탑산업훈장은 최정식 더비엔 대표이사가 선정돼 총 5명이 훈장을 받았다. 근정포장에는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 산업포장에는 김동현 태화정보통신 대표이사 등 총 6명에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김기홍 샌즈랩 대표이사, 김택환 장흥장동우체국 집배7급 등 총 개인 17명과 단체 2곳이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오재민 주식회사 루닛 부서장과 박영진 지노시스 대표 등 총 개인 21명과 2개 단체가 받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3대 기술인 인공지능(AI), 양자, 첨단바이오 기술의 폭발적 잠재력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안정호 서울대학교 교수(인공지능), 손영익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양자), 고아라 포항공대 교수(첨단바이오)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정보과학통신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마음껏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은주 기자 ryu@enewstoday.co.kr